

## ‘광주형 일자리’ 1박2일 끝장협상

광주시, 지역 노동계 협상 일임받아 현대차와 막판 조율  
당정청 전폭 지원 속 노조와 갈등 ... 어제 의견차만 확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설립 사업’ (이하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타결 여부가 오늘(15일) 오후 결정된다. 지역노동계로부터 협상을 일임받은 광주형 협상단은 14일 오후부터 1박2일 협상을 벌일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광주형 일자리 사업에 전폭적인 지지와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현대차 노조에 이어 기아차 노조까지 타결 시 총파업을 결정하는 등 광주형 일자리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노동계의 갈등 양상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어 쉽게 그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관련기사 3편〉

14일 오후 협상에서는 광주시와 현대차의 의견 차만 확인한 채 2시간 여만에 마무리됐다. 오늘 이어질 협상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시 협상단을 이끌고 있는 이병훈 문화경제부시장장은 14일 “(지역노동계와 함께 작성한 수정 협약서의) 문구 하나하나를 놓고 현대차와 논의하게 돼 데드라인인 15일 오후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현대차와 지역노동계 간 불신이 존재하는데다 새로운 모델까지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라서 녹록치 않다”고 토로했다. 현대차 내부에서는 광주시와 지역노동계가 작성한 합의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노동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광주형 일자리 성공을 위한 투자유치추진단(이하 추진단)은 13일 밤 9시부터 3시간 동안 3차 회의를 가졌다. 예상대로 격론이 오갔으나 지역노동계는 현대차와의 협상에서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주시와 입장을 같이 하고 협상을 일임하기로 했다.

합의문을 발표하고, 현대차 투자 유지와 관련된 최종 협상은 합의 정신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상팀에 맡기기로 한 것이다.

추진단은 광주형일자리 4대 원칙인 적정임금, 적정노동시간, 노사책임경영, 원하정 관계 개선에 관해 노동계와 광주시가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합의했다.

신설법인 설립 과정에 있어서 투자유치 추진단의 실무 역할 강화와 기존의 원탁회의 합의사항인 상설 노정협의체의 내년 2월 설치, 미래자동차산업 발전을 위한 자동차산업정책연구원 설립 추진 등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민감한 사안인 적정임금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 없이 연구용역을 수행해 그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정하도록 했다. 다만 반드시 자주적인 노동계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주체가 돼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거쳐 사측의 대표와 교섭을 통해 체결하는 협약 임금이여야 한다는 점을 포함시켰다.

적정노동시간은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주 40시간으로 하고, 사업장별 생산량 변동에 따라 1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연장 및 휴일 근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기로 했다. 생산성의 향상을 도모하면서 지속적으로 근로시간의 단축을 지향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적정노동시간은 언급하고, 적정임금은 광주시와 현대차가 투자해 2019년 상반기 설립법인과 산단의 노사는 격차 해소와 ‘공정경영’ 원칙 수립, 노사협의회 기능 확대와 강화 등 상생 경영을 하기로 했다.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의 장치 마련, 적정단가 보장, 산단 내 기업 간 협약 체제 구축 등 원하정 관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그 외에도 노사책임경영과 관련해 신설법인과 산단의 노사는 격차 해소와 ‘공정경영’ 원칙 수립, 노사협의회 기능 확대와 강화 등 상생 경영을 하기로 했다. 공정경영과 포괄적 임금교섭의 장치 마련, 적정단가 보장, 산단 내 기업 간 협약 체제 구축 등 원하정 관계 개선에도 힘쓰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이총리·호남 의원 간담회 “KTX 호남선 직선화 계속 논의”

정부, 지역 갈등 우려 부정적

이낙연 국무총리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KTX 호남선 노선 직선화를 요구하는 호남지역 국회의원 11명과 간담회를 하고 “호남선을 직선화하면서 세종역을 신설하는 문제는 당장 결론을 못 내고, 계속해서 논의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간담회 참석 의원들이 전했다.

의원들에 따르면 이 총리는 이날 “KTX 직선화가 논의되기 전 세종역 신설 즉, 이해찬 대표가 말한 세종역 신설(직선화가 아닌 오송에서 세종을 경유하는 것)에 대해선 지역간 갈등 폭발 우려가 있어 정부가 부정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날 의원들은 이 총리에게 “평택에서 오송까지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데 이 기회에 KTX 호남선을 직선화하는 노

선을 넣어서 예비타당성 조사를 하는 방향으로 KTX 호남선을 직선화 해야 한다”며 “현재는 오송을 경유하면서 요금 3000원을, 1년에 440억원을 더 부담하고 있으니 이를 인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요금 인하 문제에 대해 이 총리는 “경부선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어서 정부 내에서는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원들은 또 “지난 2005년 노무현 대통령과 이해찬 총리가 KTX 호남선이 재원과 경제성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한 것을 205명 의원의 서명을 받아서 대정부 건의안을 통과시켰다”며 “KTX 호남선 직선화에 대해선 국회에서 논의를 해서 150~200명 건의안을 내면 행정부는 국회 건의에 따라달라”고 요구했다.

또 의원들은 “KTX 호남선 직선화할 경우 오송-공주 구간이 비게 된다”며 “그래서

이 기회에 공주-오송-제천-춘천을 잇는 강호축 철도를 호남선 직선화와 함께 동시 추진한다면 호남-충청·강원에서로 상생할 수 있으니 동시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전선의 직선화·전철화·복선화를 요구했으며 이에 이 총리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다만, 예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권역별로 두개씩 예타 면제 대상 사업을 요청받고 있으니 광주·전남에서 예타 면제 대상 사업으로 올리면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의원들은 전라선(익산-여수) 선형 개량(직선화) 등에 대해서도 건의했고, 이 총리는 역시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바른미래당 김동철·주승용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박지원·유성엽·장병완·김경진·김광수·윤영일·정인화 의원, 무소속 이용호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지경 기자 jkpark@



“수능 잘 보세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하루 전인 14일, 광주시 남구 진월동 대성여자고에서 수험생들이 선생님들과 후배들의 응원을 받으며 수능 예비소집 학교로 향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 이것만은 기억하세요

#### 시험시간

- 오전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
- 오전8시 40분 1교시 시험 시작
- 4교시 한국사 영역은 반드시 응시하세요

#### 날씨는

- 한파 없어요
- 아침 최저기온 2~10도로 예전보다 높아요

#### 꼭 챙기세요

- 신분증
- 수험표
- 컴퓨터용 싸인펜
- 흰색 수정테이프
- 흑색 연필
- 아날로그 시계
- 지우개
- 흑색 샤프심(0.5mm) 등

#### 두고 가세요

- 휴대전화
- 전자사전
- 디지털 시계
- MP3 등
- 스마트워치
- 모든 전자기기
- 전자담배
- 개인 샤프 등

## 오늘 수능, 광주·전남 3만8080명 응시

1교시 국어 문제지 오탈자 발견 ... 정오표 개별 배부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5일 전국 86개 시험지구에서 일제히 치러진 다. <관련기사 6편>

응시 인원은 광주·전남 수험생 3만 8080명을 포함, 모두 59만4924명이다. 수험생 시험장 입실 마감 시간은 오전 8시 10분이며, 시험은 오전 8시40분에 시작해 오후 5시40분 끝난다.

이날 광주·전남은 아침 한때 안개가 끼는 곳이 있었으며 종일 대체로 맑은 것으로 예보됐다. 아침 최저기온은 1~11도, 낮 최고기온은 16~17도로 아침에는 곳에 따라 쌀쌀하고 한 낮에는 비교적 포근하겠다. 미세먼지도 종일 보통 수준으로 전망돼 수험생에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관공서, 금융기관, 기업 등은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출근 시간을 오전 9시에서 10시로 한 시간 늦춘다. 영어 듣기 평가가 이뤄지는 오후 1시10분~1시35분까지 항공기 이착륙은 전면 금지된다.

코레일도 긴급 상황 외에는 시험장 주변 운행 열차의 기적 소리를 통제하고, 열차도 서행시켜 소음을 최대한 줄이기로 했다. 광주·전남경찰청은 수능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험생 편의를 위한 특별 교통관리에 들어간다.

특히 올 수능에서는 1교시 국어영역 문제지에서 뒤늦게 오탈자가 발견돼 문제지와 함께 정오표가 개별 배부된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문제풀이에 영향이 있는 오·탈자가 아니라 ‘단순 오기’라고 설명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광주일보

#### 굿모닝 예향

- 그리운 과거 속으로 시간여행 ▶18면
- 김여울 기자 오키나와 캠프 가다
- 호랑이 군단 “훈련은 즐겁게” ▶20면

사랑과 감사의 64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18]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NEW**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한울 달빛유자 수면팩

잘가, 피부 피로  
잘자, 내 피부

고흥 유자 6개를 고스란히 담아 유자비타C 콤플렉스™의 항산화력으로  
피부피로를 싸악 풀어 다음 날, 생기 가득 환한 피부

**한울** 韓律

· 전국 어디든, 미네, 아모레퍼미픽 매장, 아모레퍼미픽 온라인몰을 통해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 홈페이지: http://www.amorepacific.com · 전화번호: 080-023-5454